

걷기 좋은 길, 광양 남파랑길 49코스

망덕포구·운동주 유고 정병욱 가옥
배알도 섬 정원·김 시식지 등
강·포구·섬·낙조 등 자연경관
시·스토리 등 인문 어우러진 길



소나무와 쪽빛 바다, 포구 등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배알도 섬정원 정상 해운정.

‘섬진강 물결 따라 느긋하게 걷는 남파랑길’
코리아둘레길은 우리나라 외곽 4500km를 연결하
는 걷기 여행길로 해파랑길(동해안 구간), 남파랑
길(남해안 구간), DMZ 평화의 길, 서해랑길(서해
안구간)로 이뤄져 있다.

남해안 구간인 ‘남파랑길’에 해당하는 광양은 다
압면부터 광양읍까지를 잇는 4개 코스(48-51코
스)로 총 54.3km에 달한다.

그중 49코스는 망덕포구-운동주 유고 보존 정병
욱 가옥-배알도 섬 정원-광양 김 시식지를 잇는 구
간으로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을 따라 느긋하게 걸
을 수 있는 걷기 명소다.

망덕포구는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으로 운동
주의 유고 ‘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’를 간직한 비하
인드 스토리를 만날 수 있는 문화기행지로 인기가
높다.

여백의미를 자랑하는 배알도 섬 정원은 일상을
떠난 걷기 여행자에게 쉽고 힐링을 선사하고 정상
의 해운정은 소나무, 쪽빛 바다, 포구 등을 한가득

담아낸다.

해 질 녘 바다로 붉게 떨어지는 섬 정원의 낙조도
아름다운 경관으로 꼽힌다.

섬 정원에서 해맞이다리를 건너면 해송과 미루나
무가 활랑거리는 배알도 수변공원이 이어지는데 마
지막 코스인 광양 김 시식지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
게 내딛게 되는 곳이다.

광양 김 시식지는 김을 최초로 양식한 장소성과
김 명칭의 유래, 김 양식 과정 등 김에 관한 모든

것을 알 수 있는 박물관의 기능을 두루 지닌 곳이
다.

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“맑은 섬진강과 은빛
역사가 일렁이는 남파랑길 49코스는 강, 포구, 섬
등 아름다운 자연과 시, 사람, 이야기 등 인문이 어
우러진 공간이다”며 “걷기 좋은 11월, 섬진강변을
걸으며 건강을 챙기고 아름답고 흥미진진한 이야기
들도 만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/광양=김대수 기자 kds@kwangju.co.kr



순천시 노인회, 저소득 어르신에 김장 나눔

400세대에 전달

순천시 노인회(회장 김영수)는 지난 22일 저
소득 독거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
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. <사진>

김장 나눔 행사에는 순점식 순천시부시장을 비
롯해 남영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-곡성지사
장, 채규선 순천원예농업협동조합장, 박병선 순
천세계수석박물관장,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
참석했다.

이번 행사는 순천시,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-
곡성지사, 순천원예농업협동조합, 순천세계수석
박물관, (사)대한노인회 중앙회의 후원으로 진

행했다.

김치는 동절기 어르신 안부 살피기와 위기 사
전 예방을 위해 24개 읍·면·동 분회장들이 100세
이상 어르신 60여 명과 지원 대상자 400가구를
직접 방문해 전달했다.

순점식 순천시 부시장은 “많은 분들의 온정이 담
긴 김장김치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
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.”고 말했다.

한편,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는 지역 노인들
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자리 및 교육
사업 추진,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며 지역사회
와 함께하는 모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
/순천=김은중 기자 ejkim@kwangju.co.kr



고흥군은 포두면 길두리 갯머리 힐링 센터 광장에서 사회단체 및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‘농촌
중심지 활성화 사업 준공식’을 개최했다. <고흥군 제공>

고흥군, 포두면 주민 휴식 공간 준공

갯머리 쉽터·게이트볼장 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

고흥 포두면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완공됐
다.

고흥군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포두면 농촌
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준공됐다고 밝혔다.

포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
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
57억원을 들여 연면적 723㎡, 지상 2층 규모로 힐
링 쉽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.

주요 시설은 지상 1층에 남·녀 목욕탕과 사무실
을 갖추고 2층에는 종합 세미나실과 체력단련실이

마련됐다.

또 482㎡ 규모의 게이트볼장과 함께 부대시설로
는 버스 승강장과 주차장 67면 등 쾌적하고 이용하
기 좋은 공간으로 설계됐다.

고흥군 관계자는 “농촌 생활의 힘든 과정에서도
주민들이 힐링과 휴식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
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완공을 봤다”며 “앞
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
이다”고 말했다.

/고흥=주각중 기자 gju@kwangju.co.kr

동동동 북 울려라~

‘여수동동북축제’ 26일 개막
학동 용기공원·선소 일원서

‘2022 여수 동동북축제’가 오는 26일부터 27일
까지 여수시 학동 용기공원과 선소 일원에서 개최
된다.

이번 동동북축제는 당초 지난 5일과 6일 열릴 예
정이었으나, 이태원 사고를 애도하는 사회적 분위
기를 고려해 3주 연기해 개최하게 됐다.

시는 각종 안전사고와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 관
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
다.

한편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북 퍼레이드는
26일 오후 5시 부영3단지 사거리로 출발해 용기공
원까지 약 1km 구간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
며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.

김병호 축제추진위원장은 “축제기간 북 퍼레이
드, 북 아티스트 공연, 마스터클래스, 동동한마당
등 북소리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
했다”고 밝혔다.

정기명 여수시장은 “나라를 지키던 민초들의 노
래를 축제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여수동동북축제
로, 체험형 문화축제로 주목받고 있다”면서 “관광
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이번 축제에 많은 시민과
관광객의 참여를 바란다”고 전했다.

/여수=김창화 기자·동부취재본부장 chkim@

곡성군 희망복지기동서비스 3년만에 재개

삼기면 괴소리서 양방 진료...농기계 수리·빨래방 등 제공

곡성군 찾아가는
희망복지기동서비스
(이하기동서비스)가
양방 진료를 3년 만에
재개했다.

곡성군에 따르면
최근 삼기면 괴소리
에서 2022년도 29차
기동서비스가 진행됐
다. <사진>

이날 다양한 복지
서비스를 받기 위해
많은 주민들이 현장
을 찾았다.

특히 코로나19로
중단됐던 양방 진료를
3년 만에 재개하자
괴소리 주민뿐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서
비스를 받기 위해 마을 입구 앞으로 모여들었다.

양방 진료 서비스는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의
협업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다. 농촌의 의료 접근
성, 기대수명 등 도시와 농촌의 건강 수준 격차를
줄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.

기동서비스는 매주 목요일 1개 마을을 찾아가



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곡성군
의 대표 생활밀착 공공 서비스다.

농기계 수리에서부터 한방 및 양방 진료, 전기
안전 점검, 이동 빨래방, 이동 목욕, 안마, 깔갈
이, 맞춤형 상담, 방역소독, 주택 소방 안전 점검
등을 제공하고 있다.

/곡성=박종태 기자 pj@kwangju.co.kr

튼튼한 지킴이

실손의료보험! 국민건강!

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!